
EBS 연계의 통계학적 분석

1. 몇 개의 지문이 출제되는가?

과연 EBS 지문에서 얼마나 출제된 것일까요? 다음은 2년간의 연계 출제 현황입니다.

■ 수능 독해 중 EBS 독해지문 출제 수

2012. 6	2012. 9	2012. 수능	2013. 6	2013. 9	2013. 수능	2014
33문제						23문제
21	19	18	18(문제19)	19	18	12.5~13.6 (?)

과거에 독해 33문제가 출제될 때, 18-2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것을 23문제에 비례해서 적용해 보면, 12개에서 13개의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2. 어떤 교재가 더 중요한가?

EBS 연계 교재 중, 어떤 교재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다음은 2년간의 연계 출제 현황입니다.

■ 2012학년도 EBS 연계 추이표(독해)

2012. 6월 모평		2012. 9월 모평		2012. 수능	
수능특강	11	수능특강	3	수능특강	3
영어독해연습1	5	영어독해연습1	2	영어독해연습1	
영어독해연습2	4	영어독해연습2	3	영어독해연습2	3
		330제	5	330제	4
		수능완성	6	수능완성	8
고교영어듣기	1				

■ 2013학년도 EBS 연계 추이표(독해)

2012. 6월 모평		2012. 9월 모평		2012. 수능	
수능특강	11	수능특강	3	수능특강	3
영어독해연습1	5	영어독해연습1	4	영어독해연습1	5
영어독해연습2	2	영어독해연습2	1	영어독해연습2	3
		330제	8	330제	3
		수능완성	3	수능완성	4

1) 출간 시기가 빨라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많은 지문이 출제된 교재는, 수능에 출제될 후보 지문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대표적인 교재가 ‘수능특강’입니다. ‘수능특강’, ‘330제(올해는 230제)’, ‘수능완성’은 독해 지문수가 거의 비슷한데요, ‘수능특강’은 6월, 9월 모평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에 가면 ‘330제’, ‘수능완성’보다 그 비중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어독해연습1과 2’(올해는 ‘영어독해연습’ 한 권)의 경우도 비슷한 운명입니다.

2) 그에 반해 출간 시기가 느린 ‘230제’와 ‘수능완성’은 6월 모평에 출제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결국 출제 시기의 관점에서 ‘230제’와 ‘수능완성’이 중요합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에도 ‘230제’가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재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수능특강’과 ‘영어독해연습’이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BS 연계는 어차피

듣기교재 2권을 포함하여 6권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절대 '230제'와 '수능완성'만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230제와 수능완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에 뒤통수를 치기라도 하는 듯, 2013 수능은 '영어독해연습'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독해연습'은 교재의 분량이 다른 세 책의 절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독해연습'에서 2배 더 많이 출제된 셈입니다. 결국 '수능특강'과 '영어독해연습'부터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자신감이 중요한데, 6월 모평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그 자신감이 배가됩니다. 결국 모평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측면에서도 '수능특강'과 '영어독해연습'의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떤 문제 유형에 집중할 것인가?

EBS 책에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변형되어 출제 될까요? 다음은 2년간의 연계 출제 현황입니다.

■ EBS 교재에 있던 문제 유형 분석(독해)

2011 합계		2012 합계		2013 합계		6회 총계	
제목	3	제목	7	제목	2	대의	34
주제	3	주제	1	주제	3		
주장/요지	3	주장/요지	4	주장/요지	1		
문단요약	1	문단요약	3	문단요약	3		
빈칸	11	빈칸	12	빈칸	12	빈칸	35
어법	8	어법	7	어법	4	어법어휘	41
어휘	8	어휘	6	어휘	8		
빈칸(연결사)	2	빈칸(연결사)	4	빈칸(연결사)	5	논리구조	28
무관한문장	2	무관한문장	2	무관한문장	2		
문장넣기	1	문장넣기	3	문장넣기	1		
글의순서	1	글의순서	2	글의순서	3		
도표	3	도표	3	도표	3	도표	9
장문	1	장문	1	장문	4	장문	6
지시어	1	내용일치	1	지시어	1	기타	8
	내용일치			2			
	심경			1			
	듣기			1			

1) 한마디로 지문의 가치가 높은 문제 유형은

- ①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단요약 등 글의 대의 유형
- ② 빈칸완성 유형
- ③ 어법, 어휘 유형
- ④ 논리구조

① 제목, 주제, 요지, 주장, 문단요약 등 대의 유형은 논리 구조가 분명한 **논설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로도 변형이 가능해서 지문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빈칸완성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것은 **수능 출제 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매뉴얼’을 보면 빈칸을 주제 혹은 요지에 두거나 아니면 주제와 밀접한 세부사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빈칸완성 지문은 주제/요지가 분명한 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빈칸완성 지문의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지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어법, 어휘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해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어떤 유형의 독해 문제로도 변형**이 쉽습니다. 주제 문제를 요지 문제로 바꾸어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글의 순서 문제를 문장넣기 문제로 바꾸기도 난감합니다. 비슷한 범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법, 어휘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④ 문단의 논리구조 범주(연결사, 글의순서, 무관한문장, 문장넣기)는 글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하거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하는 지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논지가 강한 논설문 지문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지문은 앞의 세 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는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 2012학년도 논리구조 지문 출제

2012. 6월 모평		2012. 9월 모평		2012. 수능	
문장넣기	1	빈칸(연결사)	1	빈칸(연결사)	3
		무관한문장	1	무관한문장	1
				문장넣기	2
		글의순서	1	글의순서	1

■ 2013학년도 논리구조 지문 출제

2013. 6월 모평		2013. 9월 모평		2013. 수능	
빈칸(연결사)	1	빈칸(연결사)	3	빈칸(연결사)	1
				무관한문장	2
문장넣기	1			글의순서	3

하지만 이렇게 출제된 2012 수능, 2013 수능의 논리구조 지문은 난이도가 대개 낮았습니다. 교과평이 제 [변형독해]를 포함한 시중 교재와의 중복 출제를 피하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 **도표**문제 6회는 모두 EBS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도표 문제는 무조건 EBS에서 출제합니다. 물론 지문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즉 도표만 숙지해 두면 됩니다. 도표 하나만 따다 써도 EBS 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셈이니,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3) 2013학년도에 갑자기 출제가 많이 이루어진 장문독해. 2013학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3회의 시험에 걸쳐 장문독해 지문이 4개(문제수능 5개)나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2013. 6월 모평에는 EBS의 장문독해 지문을 약간 고쳐서 또 다른 장문독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011, 2012에 없던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장문독해는 읽지 않고 skip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평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안 보고 넘어간다 이거지. 한 번 당해봐라.....” ㅠㅠ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므로, 속는 셈 치고 내용이 생소하지는 않도록 한 번은 꼭 읽고 넘어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4) 그럼 어떤 유형의 지문은 덜 중요한 것일까요? 한번 봐두기는 해야겠지만 복습까지 할 필요는 없는 유형, 저도 변형독해 교재에 잘 선발하지 않는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유형의 지문을 건너뛰는 것은 과하다고 보아야겠지만, 집중하거나 복습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① 목적
- ② 분위기, 심경
- ③ 내용일치, 불일치
- ④ 지칭추론

① 글의 목적 유형의 지문은 짧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지, 편지 등의 **실용문**이라 다른 유형으로 변형하기 곤란합니다.

② 분위기와 심경은 대개 일화나 어떤 정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형의 지문은 오직 이 유형을 위해서 발탁된 독특한 지문입니다. 분위기와 심경 지문은 목적보다 지문 난이도가 높지만, **지문의 특성**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유형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③ 내용일치(불일치) 문제는 **설명문**이 많습니다. 설명문은 논지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단요약, 빈칸, 연결사 등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문장넣기, 글의순서, 무관한 문장 등으로는 변형할 수 있으나, 출제를 하더라도 연대순 배열이 되는 등 난이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라면 어떤 유형으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일치 문제는 **소수의 논설문의 경우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④ 지칭추론 지문은 대개 단순합니다.

4.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EBS 지문이 많이 쓰이나?

다음은 추출한 EBS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바뀌어서 출제되었는가의 정보입니다.

[도표] 2011, 2012, 2013, 9회에 걸친 기출문제 총계

어법	18 all	제목	13 of 18	목적	1 of 12
어휘	18 all	주제	13 of 18	심경	2 of 12
도표	9 all	주장/요지	15 of 24		
		빈칸	27 of 54		
		빈칸(연결사)	6 of 9		
		무관한문장	9 of 10		
		글의순서	7 of 10		
		문장넣기	5 of 10		
		내용일치	10 of 18		
		지시어	5 of 9		

1) 어법, 어휘, 도표 문제는 모두 EBS 지문 혹은 표로만 출제했습니다. 제목, 주제, 요지 등도 EBS 지문이 많이 쓰였습니다. 연결사와 무관한 문장, 글의순서, 내용일치, 지시어 등도 EBS 지문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아무 EBS 지문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무관한 문장의 의존도가 높네요.

2) 빈칸완성과 문장넣기는 딱 절반만 연계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난이도가 높은 빈칸완성의 통계 수치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절반은 친숙한 EBS 지문, 절반은 매우 생소하고 난이도 높은 외부 지문이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그에 반해 목적, 심경은 EBS 지문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 유형은 특수한 지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BS 지문을 가져오려면 유형이 같은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가져옵니다. 따라서 비 EBS 지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EBS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5.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유형 변형을 직접 해 보자.

1) 글의 대의(주제, 요지, 제목, 문단요약)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EBS 유형	변형된 유형	EBS 유형	변형된 유형
2011-2012 2개년 글의 대의(25)	빈칸(8)	2013 글의 대의(9)	빈칸(3)
	어법(4)		어법(1)
	연결사(3)		
	제목(3)		제목(1)
	어휘(3)		어휘(2)
	무관한문장(2)		문장넣기(1)
	글의순서(1)		글의순서(1)
	요지(1)		

① EBS에 대의 문제로 되어 있는 지문은 빈칸 완성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EBS의 대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제문을 찾고, 중심소재와 핵심어, 주제요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어휘 등을 모두 네모를 치면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어구, 대조관계에 있는 어구 등은 모두 네모를 쳐야 합니다.

② 글의 대의 문제가 다른 대의 문제로 바뀐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체로 제목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요지, 주장, 주제는 글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반해, 제목은 포괄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빈칸완성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EBS 유형	변형된 유형	EBS 유형	변형된 유형
2011-2012 2개년 빈칸완성(23)	글의 대의(9)	2013 빈칸완성(12)	글의 대의(3)
	어휘(5)		어휘(2)
	어법(3)		어법(1)
	내용일치(2)		빈칸완성(2)
	글의순서(2)		글의순서(2)
	문장넣기(1)		무관한문장(1)
	연결사(1)		연결사(1)

- ① 빈칸완성 유형의 지문은 대개 논리적 완결성이 강한 논설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완성 유형의 지문은 대개 ‘대의 문제’로 바뀌거나 ‘어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빈칸완성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제, 요지를 지문 밑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 ② 어휘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므로 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표현들, 특히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저해하는가 촉진하는가, 많은가 적은가 등의 변수를 주목해야 하며, 난이도가 높은 어휘 등을 네모를 치고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 ③ 2013학년도는 변칙의 해입니다. 빈칸완성 유형을 다른 빈칸완성 유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2개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빈칸완성 지문이라도 다른 빈칸을 만들 여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어법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EBS 유형	변형된 유형	EBS 유형	변형된 유형
2011-2012 2개년 어법(15)	글의 대의(6)	2013 어법(4)	글의 대의(1)
	빈칸(3)		빈칸(1)
	내용일치(3)		내용일치(1)
	어휘(1)		
	지시어(1)		
	연결사(1)		무관한문장(1)

어법 유형은 2011-2012학년도로 볼 때 대의문제와 빈칸완성으로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2013학년도는 어법 지문이 너무 추출되지 않아서 통계적 가치가 없습니다. EBS에서 어법 문제를 풀다 보면, 어법적 원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지문을 다 읽지 않고 (A), (B), (C) 좌우만을 보고 문제 풀이를 끝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EBS 어법 문제는 수능 어법 문제로 나오지 않죠. 따라서 어법 문제는 어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의문제와 빈칸완성 대비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4) 어휘 유형으로 되어 있는 EBS 지문을 공부할 때

EBS 유형	변형된 유형	EBS 유형	변형된 유형
2011~2012 2개년 어휘(14)	글의 대의(5)	2013 어휘(8)	글의 대의(3)
	빈칸(2)		빈칸(1)
	내용일치(2)		지시어(1)
	무관한문장(2)		무관한문장(1)
	어법(2)		어법(2)
	글의순서(1)		글의순서(1)

어휘 유형은 주로 대의 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휘 부분만 보고 학습을 끝내지 말고 반드시 주제와 요지를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툄아일체-김찬휘의 변형독해] 교재는 4월 8일에 출간됩니다. 강의는 티치미(www.teachme.co.kr), 대성마이맥(www.mimacstudy.com), 비상에듀(<http://www.visangedu.com/>) 에서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